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홈스쿨링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학교의 이미지와 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를 쪼개서

크게 산업 시대,

2000년 이전의 시대를

산업 시대라고 하기로 하고요.

2000년 이후의 시대를

의식혁명의 시대로 그렇게 정의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시대에는 교육이

개인이나 국가나 가족의 성장이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의식혁명 시대인 미래에는

인류의 평화, 지구환경의 보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구상에서 멀하지 않고

생존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지향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특성 또한

20세기 이전에는

지식과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21세기에는 의식을 성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20세기까지는

청소년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40세 이전의 학습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반대로 21세기에는 그 연령이

점점 올라가서 40세 이후의 성인들이

주 학습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습공간 또한 산업 시대에는
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의식혁명 시대인 미래사회에서는
학교에 가상공간이 추가되는 형태,

바로 이 지점에서
홈스쿨링은 출현하게 됩니다.

그 가상공간에는 가정과 사회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밖의 다른 공간도
이 가상공간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학습공간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학습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학교와 교실의 공간에서

주로 교육이 이뤄졌던 시기에는
집단학습체제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집단학습체제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리자를 교사라고 했고
그래서 20세기까지의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에서의 수업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학교의 가상공간,
또는 가정이 추가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집단학습과 더불어서
개별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설정하고
진도를 조정하는 것도

학교와 교육과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눈높이에 의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세기의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선생님 대신
시스템이나 사이버학습 로봇 또는 매체,

아바타 같은 것들이
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세기의 교사들의 주 역할은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21세기에는 학생들의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관리해 주고

평가해 주는 이런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잘 가르치는 교수법보다도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는 요구되는 것이

통계적 기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교육의 성과 또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억력을

측정하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그것보다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우리가 오감, 더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활동도

지식 중심이 아니라

실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할까?’ 라고

봤을 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는.

20세기에는 학교라고 하면

어둡고 칙칙한 인상이 듭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1세기에는 이런 것들은

전부 가상공간이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상공간이나

홈스쿨링에서 채워줄 수 없는

실습이나 실기나 체험, 또는 놀이,

또는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학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학력 중심의 도구나
주지 교과가 강조됐다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중심의 실습이나 체험교과가

미래에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력중심의 지-덕-체 순으로
강조되었던 지금까지의 교육이

인성 중심의 덕-체-지 순으로
강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교육의 패러다임은

20세기 이전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교를 통한 학습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하드 스킬이
주요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미래에는 제한된 시간,
즉 태어나서 약 24살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저스트 인타임 러닝’ 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요한 교육 콘텐츠도

하드 스킬에서 소프트 스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 통합교육과정’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시대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글로벌 수준의

통합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계 통합교육과정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양계의 저 끝에 있는

별 하나가 가짜래.

이런 이슈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은 그런 내용을

검증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
모든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백과사전을
찍어냈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을 모두 폐기하고

그 한 장의 태양계 사진 때문에
새롭게 다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또 몇 년 안 가서 새로운 혹성이
태양계에 포함된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해야겠죠.

이 엄청나게 많은 작업과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교육과정을 바꾸고 바꾼 교육과정이
아무리 빨리

현장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이면 이미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별로 현실세계에

의미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상당히 넉센스죠.

바로 세계 통합교육과정은
이러한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계 끝에 있는 별 하나가 가짜다.

그러면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협의하고
프로그래머들이 결정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엔에 위치한
세계 통합교육과정 서버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적어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석 달 안에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이
최신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접하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국가 간의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에너지나 인적 자원,

예산들도 대폭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세계 통합교육과정을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시대가 변하고

교육의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기마다 새로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러한 답을 해 줬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경험을 한 단어들을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게 했는데요.

그때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가족, 부모님, 어머니, 격려, 칭찬

또는 친척, 행사, 편지.
그리고 여행, 음식, 식사, 친구의 배려,

놀았던 일, 낮잠 잤던 것,
상을 받았던 것,

그다음에 가장 큰 행복은
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낙천성,
그다음에 자기 성찰, 문제 해결,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참 재미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으로 융합을 해 보자.

단어들을, “가족 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여러 가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다.” 라고

융합을 해보면 정말 멋진

하나의 활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융합적으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반대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된 단어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단연 첫 번째로 등장한 게

'경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 성적, 학업, 입시,

수험생활, 수능, 재수, 미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로 생활,

취업 준비, 돈, 금전, 나이나 서열,

성격, 자율성, 적응력,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융합적인 활동으로

측면지원해 준다면

훨씬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교육과 홈스쿨링이

그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홈스쿨링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공교육이 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들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해외의

홈스쿨링들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학교가 우리 아이를 더이상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없다는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 되어서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겠다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너무 희박하다보니까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는데 2~3시간,

그러면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또 데리러 가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홈스쿨링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지매, 왕따와 같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족적인 문화로서

홈스쿨링이 등장하는 특이한 현상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공교육과 홈스쿨링이 건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 봤던 거죠.

홈스쿨링은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홈스쿨링은

자녀의 개성과 적성을 살려주는 쪽에
올인하는 쪽으로 가 주면 어떨까?

반대로 공교육은
가정에서 해 주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형, 동생 간의 형제 개념도 사라지고,

사촌의 개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정에서 채워주려야
채워줄 수 없는 시민의식이라든가,

형제, 사회구성원으로서 위치 ·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 분담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진화해 나가더라도
우리의 교육은 건재하게 우리 삶과 함께

수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이 표의 가장 포인트는
저 3개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나는 지점이 대략 우리나라 학제로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점이 여기에서 만나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의 실선은 유치원,
K라고 쓰여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고요.

녹색의,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곡선은
유치원에서부터 점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란색 계열의 직선은 제가 편의상
수평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붉은색의 하향 직선과

하늘색 계열의 상향직선,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중학교 2학년이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치원으로 갈수록

문자나 지식중심의 교육보다는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비중을 키워야 한다.

적색 곡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역전되는 터닝포인트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어린 시절에 너무 조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서 아이들을
문자나 책속에 묻어두는 것은

별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평균수명 70세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세, 130세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70세 정도 살아가는 것을
대충 계산했을 때

인생의 1/3은 20~24살 정도,
20년~24년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 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3이죠.

만약에 130세의 1/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40~45살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이 20살이 되어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을 때
과연 어린 시절의 기간도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은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와 선생님은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는

충분히 책이 아닌 동심의
세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고

적어도 정말로 마음이 급하다면
중학교 2학년쯤부터 문자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